

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|--|---|---|
|  국토교통부 | | 보 도 자 료 | |  |
|  | | 배포일시 | 2019. 7. 19.(금) 총 3매(본문3) | |
| 담당부서 | 도시재생 경제과 | 담당자 | • 과장 정승현, 사무관 염지원 • ☎ (044) 201-4926 | |
| | 도시 정책과 | 담당자 | • 과장 이상주, 사무관 오원택 • ☎ (044) 201-3709 | |
| 보도일시 | | 2019년 7월 2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21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 | | |

국토부-유엔 해비타트 맞손, 도시재생 글로벌 인재 키운다

- 22일 업무협약 체결..글로벌 인재양성·청년 참여형 사업모델 발굴 등 -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2일(월) 글로벌 도시재생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국제연합 인간정주프로그램*(이하 “유엔 해비타트”)과의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한다고 밝혔다.

* 유엔기구 내 인간정주 및 도시 분야를 관장하는 최고기구로 '77년에 설치되어 주거문제의 해결 및 도시화 대응전략 마련 등을 위한 개도국을 지원

□ 이번에 체결하는 양해각서는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유엔 해비타트 간 **협력의 틀을 마련**하려는 것으로,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청년이 주도적으로 혁신적인 도시재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 기구에 파견하여 청년역량을 강화한다.
- ②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지자체와 연계하여 청년 참여형 도시재생 모델을 마련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와 유엔 해비타트가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국 내에 글로벌 도시재생 프로그램 오피스를 기획한다.

* 본 MOU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최종으로 서명 한 날을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일방당사자가 조기에 종료하지 않는 한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함

- 본 MOU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유엔 해비타트는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도시재생 분야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,
 - 상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도시재생 분야 해외진출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.
- 또한, MOU 후속조치를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LH가 유엔 해비타트와 **별도의 세부이행계약**(19.8월 예정)을 체결한다.
 - 국내 연구진과 유엔 해비타트는 청년 참여형 도시재생모델 마련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,
 - 유엔 해비타트 청년 인턴십(UN Volunteer) 파견을 통해 글로벌 청년 전문가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와 유엔 해비타트는 2018년부터 청년들의 도시재생 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협의해온 바 있다.
 - 지난 5월에는 제1차 유엔 해비타트 총회*에 국토교통부, LH, 국토연구원 등이 한국 대표단(수석대표: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이탁)으로 참석하여 양 기관 간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였다.
 - * 케냐 나이로비에서 19.5.27(월)~5.31(일) 동안 기존 집행이사회를 대체하여 개최한 총회이며 ‘도시 및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’을 의제로 127개국 정부 대표단(1,121명) 참석
 - 아울러 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은 127개국 정부 대표단을 대상으로 “도시재생 뉴딜정책”, “스마트 시티” 등 주요 국정과제들을 소개하였고,
 - 특히 우리나라는 제1차 유엔 해비타트 총회에서 새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에 **선출***됨으로써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다.
 - * 지역별로 총 36개국(아시아·태평양 그룹은 8석)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장은 미국(Lori Dando), 부의장은 중국, 러시아, 아르헨티나에서 선출
(아시아·태평양) : 한국, 중국, 일본, 인도, 이란, 인도네시아, 파키스탄, 스리랑카

□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김이탁 단장은 “이번 MOU를 통해 ‘모두를 위한 도시’라는 비전이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* 2016년 유엔 해비타트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“모두를 위한 도시(Cities for All)”로 ‘균형성’, ‘다양성’, ‘포용성’, ‘회복탄력성’을 도시재생의 정책이념으로 제시

○ 아울러 “우리 청년들이 도시재생 분야에서 국제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MOU관련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영지원 사무관(☎044-201-4926), 총회 관련은 도시정책과 오원택 사무관(☎044-201-370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